

영암 대불산단 DHMC 컨소시엄 부유식 해상풍력 주관기관 선정

2025년까지 220억 들여 'MW급 탈착형 계류시스템' 개발 기술 수입비용 절감 기대



영암 대불산단 DHMC에서 회사 관계자가 계류시스템 필수기계가 가공공정을 설명하고 있다.

영암 대불산단의 (주)DHMC(대표 서호길·서창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탈착형 계류시스템 개발' 사업 주관사로 선정됐다.

(주)DHMC 컨소시엄은 (주)코스, (주)울산랩, (주)포어시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인하대, 국립목포대, 한국해양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 10월31일까지 48개월 동안 220억 원이 투자된다.

이번 부유식 해상풍력 국책과제는 8MW급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에 적용 가능한 1000t급 극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탈부착가능 다점 계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실증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인 탈착형 계류시스템은 부유체인 해상 구조물 전체 시스템의 운동 안정성과 위치 유지와 작업 성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핵심 설비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탈부착 장치의 기구학적 설계를 통해 혁신적인 계류시스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계류장치를 탈착 후 특수예인선으로 이송 후 부두에서 안전하게

수리할 경우 약 80%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방식에서는 체인 사이에 링크를 삽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해체·연결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파손·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계류시스템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더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아 해외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DHMC는 비상경인시스템(ETS)의 실 규모 시험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국책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술수입비용 절감과 21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자료조사·개념설계에 착수해 12월 31일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상세설계를 마치고 2024년에 제작설계와 1차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2025년 10월31일까지는 2차 성능평가·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호길 DHMC 대표는 "해상풍력 탈착형 계류시스템은 유럽의 우수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새콤달콤 만감류 수확 한창

한라봉·레드향·천혜향 27t 예상

'새콤달콤 과즙 팡팡' 완도에 레드향 향기가 가득 퍼지고 있다.

완도군에서 시설 재배 만감류(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수확이 한창이다.

완도군은 지난 2001년 시범 사업으로 0.2ha에 한라봉 재배를 시작했으며 현재 15개 농가에서 3.8ha에 달하는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다.

완도는 내륙 지역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 아열대과

수 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되고 깨끗한 해풍을 맞고 자라 만감류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특히 당도는 13브릭스 이상, 산도는 1.0% 이하의 고품질 과실만 선별해 출하하고 있으며, 올해 만감류 수확량은 27t으로 예상된다.

최장섭 완도시설감귤연구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한 농가 관계자가 잘 익은 레드향을 수확하고 있다.

도서 야생생물 조사·모니터링 '손 맞잡다'

신안군-호남권생물자원관 협약

신안군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도서 야생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생물자원 조사·발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모니터링, 섬과 연안 연구자원 공동 연구 및 활용,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섬과 연안의 문화와 생물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시·교육,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조사선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 및 행정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도서 야생생물의 보전·관리 노력과 생태 연구·교육 분야의 지식 및 기술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Korean Tidal Flat, Getbol)'은 지난해 7월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결정됐다. 이어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에는 신안군 전역(3238.74km²)이 확대 지정됐다.

신안군은 다도해와 국내 최대 갯벌 등 도서·연안 생태계가 잘 발달된 지역이다. 특히 참달팽이, 신안 새우나초, 나도풍란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정착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서 야생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도서 야생생물 보전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설 선물,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하세요

명품선물세트 등 20~30% 할인

해남군이 직영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설을 앞두고 우수 농수산물 특별 할인과 함께 설 선물 이벤트를 연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행사기간 해남농수특산물을 품목당 최고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해남의 농수특산물을 골고루 담은 명품선물세트 4종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정정쌀·잡곡 15종, 축산물 8종, 수산물 20종, 전통식품 13종, 웰빙 과일채소 25종, 건강식품 19종 등 총 100여개 상품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명절기간에만 판매하면서 매년 조기 매진되는 명품 꾸러미 선물세트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수산물로 알차게 구성해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1호 3만5000원부터 4호 20만원까지이며, 30개 이상 대량 주문시 맞춤형 상품 구성도 가능하다.

행사기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대 구매량을 150명을 선별해 1~10등은 한우 프리미엄 선물세트, 11~30등은 무항생제 돼지고기 선물세트, 31~60등은 전복 2kg, 61~100등 유기농 천년향미 10kg, 101~150등은 곱창김(1톤)을 증정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또 구매수가 작성자 중 50명을 선별해 잡곡 선물 세트도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는 2월 중 해남미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발송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정해남의 우수 농수특산물로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이겨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남미소는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해남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460개 농어가, 1591개 상품이 입점돼 지난해 매출 224억을 달성하며 전국 지자체 최고의 공익형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영광군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생활지원(월 50만원 이내)과 학업지원(월 15-

30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 원 내외), 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2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 10만원 이내) 등으로 구분해 위기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영암군, 올부터 전입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영암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앞서 지난해 7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전입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가구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까지이며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영암사랑카드 발급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전입 장려 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